



동강대 미디어콘텐츠과 교수와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항일운동 당시 독립군 모습을 재현했다. 이 영상은 지난 5일 KBS1TV에서 방영된 광복 80주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마지막 증언'에 포함됐다. <동강대 제공>



지난 5일 KBS1TV에서 방영된 광복 80주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마지막 증언' 엔딩 크레딧에서 생성형 AI 영상 제작에 참여한 동강대 미디어콘텐츠과가 소개됐다.



이정선 시교육감, 어린이국회 수상자 격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3일 본청 교육감실에서 대한민국어린이국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과 지도교사, 학부모를 초청해 격려했다.

이날 자리에는 지난달 25일 국회가 주최한 '대한민국어린이국회'에서 국회의장상(대상)을 수상한 광주농성초 윤민혁 학생과 김진우 지도교사, 국회사무총장상을 수상한 월곡초 서우제 학생, 이준기 지도교사 등이 참석했다.

농성초 6학년 안민혁 학생 등 6명은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한 생분해등급 표시 의무화 법률안'을 제안해 법률안 부문 최고 상인 국회의장상 대상을 수상했다.

월곡초 6학년 서우제 학생 등 3명은 '어린이를 위한 쉬운 말 법률안 해설서 제작' 질문서로 국회사무총장상을 받았다. 두 제안 모두 환경보호와 법률 이해도 향상 등 사회적 가치를 담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복 80주년인 올해 학생들이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목소리를 대한민국어린이국회에 전했다는 점이 매우 뜻깊다"며 "이러한 경험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전남도교육청, 스마트 민원존 운영 호응

전남도교육청은 13일 "스마트 민원존(Smart Public Service Zone)"을 운영해 방문 민원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청사 1층 민원봉사실에 있는 스마트 민원존은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인 전용 PC(화상 수화 상담 포함), 복사기, 프린터기, 팩스, 문서세단기 등 다양한 디지털 장비를 갖춰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민원인이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손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창구 혼잡과 불필요한 대기 부담이 줄어드는 등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

이와 함께 청각·지체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상담창구 운영으로 장애인 민원인의 이동과 의사소통 불편이 해소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포용적 민원 환경이 조성됐다.

이전국 총무과장은 "스마트 민원존 운영으로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접근성이 향상돼 민원인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민원 서비스와 친환경 행정을 확대해 모두가 만족하는 민원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모집

▲광주매일신문 제2기 전남글로벌리더스아카데미 원우회(회장 조병은) 8월 모임=14일(목) 오후 6시30분 목포금모래식당.
▲광주매일신문 제1기 전남글로벌리더스아카데미 원우회(회장 정현택) 8월 모임=21일(목) 오후 6시30분 남악 시골집.
▲담양지역발전협의회 8월 정기 월례회의=19일(화) 오전 11시30분 담양공고 앞 원조제일술불갈비. 담양군 담양읍 마두길 4 061-381-1234, (사무국장 이달성 010-3638-3809).

행사

▲제4회 '죽화경(竹花景)' 유럽수국축제(대표 유영길)=31일(일)까지 장미정원 죽화경, 개장시간:오전 9시30분-오후 6시 담양군 봉산면 유산길길(유산리 474). 이용 안내: 010-8865-7884.

동강대, '생성형 AI'로 독립군 항일투쟁 재현

미디어콘텐츠과 교수·학생들 제작

광복군·비밀결사 조직 활동 등 구현

KBS '광복 80주년 특별다큐' 선배

동강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항일운동 당시 독립군 모습을 재현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동강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KBS 1TV에서 방영된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기획 '마지막 증언'에 미디어콘텐츠과 교수와 학생들이 제작

한 생성형 AI 영상이 포함됐다.

'마지막 증언'은 KBS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현존한 5명의 독립애국지사가 직접 겪은 항일투쟁 당시 기억과 광복 이후 삶을 추적하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2부작 다큐멘터리다.

미디어콘텐츠과 문유심 교수와 손경희(2학년)·민채홍·송인후·오인환·윤경은·이서연(이상 1학년) 학생 등 7명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독립지사의 소년병 및 광복군 시절, 비밀결사 조직 활동 등을 영상으로 구현했다.

이에 다큐 속 과거 장면이 배우 재연 없이 고화질 영상으로 표현돼 생생하고 구체적인 역사

상황이 시청자에게 전달됐다.

동강대 미디어콘텐츠과가 제작한 생성형 AI 영상은 오는 16일 오후 8시10분 KBS1TV에서 방영될 '마지막 증언' 2부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문유심 교수는 "생존 독립지사들의 항일운동 기억을 AI로 되살리는 작업이 매우 뜻깊었다"며 "기대 이상의 영상미와 생동감 넘치는 결과물로 영상 분야에서 생성형 AI 기술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음은 물론, 학생들의 실력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한편 동강대 미디어콘텐츠과는 디지털 영상 콘텐츠 산업이 급성장하고 '퍼스널 브랜딩(Per

sonal Branding)'을 활용한 개인 미디어 분야가 각광받으면서 사회 트렌드에 발맞춘 경쟁력 있는 학과 운영에 나서고 있다.

소니 FX3 4K 시네마 카메라, 전용 I-Mac 그래픽 실습실, 광주전남 유일의 비주얼스튜디오 등 광주전남권 최고의 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구축했다.

특히 광주 유일의 영화교육과정 학과로 ▲AI 콘텐츠제작 ▲인크리에이터 ▲언리얼엔진5를 포함한 모션그래픽 커리큘럼 등을 통해 관련 취·창업 분야에서도 명문학과로 발돋움하고 있다.

/박진진 기자



대광새마을금고, '건강한 여름나기' 경로당 지원

대광새마을금고는 최근 이틀에 걸쳐 광주 동구 관내 경로당 28곳에 과일과 국수를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종필 대광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무더위로 인한 피로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

한 만큼 잘 이겨내시라"는 인사와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

한편 대광새마을금고는 폭염 맞춤형 정책으로 7-8월 냉방시설과 생수 600개, 부채 등 편의시설을 갖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안태호 기자

광주 남부경찰 '기초질서 확립 유관기관 협약식'

광주 남부경찰서는 13일 시민 불편과 불신을 초래하는 반칙운전을 근절하고 도로 위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초질서 확립 유관기관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경찰서 봉선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남부경찰서와 남구청,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시설심의회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각 단체는 민·관·경 협의체를 구성해 기초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고 합동 홍보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기초질서 준수와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협을 계획이다.

김중득 남부경찰서장은 "국민 의견을 정책



방향에 반영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상습 위반이나 불편 민원을 적극 수렴해 교통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목포 '임성가는 길' 식당 나찬휘 대표, 식료품 기탁

목포시에서 '임성가는 길' 식당을 운영하는 나찬휘 대표가 지난 12일 생활이 어려운 아동세대를 위해 반찬과 식료품 꾸러미(20만원 상당)를 상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나대표는 식당 운영 수익 일부를 꾸준사회공헌 활동에 활용하며 지역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매월 정해진 일정에 맞춰 반찬, 계란, 라면, 채소 등으로 구성된 식료품 꾸러미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 있다.

나찬휘 대표는 "혼자 식사를 해결하거나 영양이 부족한 끼니를 먹는 아이들의 현실을 보며



작게나마 힘이 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식당이 되기 위해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 기자